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전화 : 86-10-6505-2672
 이메일 : beijingk@kita.net

1 中, 무비자 입국 대상국 확대... 체류기간 30일로 연장

- 중국 외교부는 11월 22일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외국 간 인적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비자 면제 국가를 확대한다고 발표
- 일본을 비롯한 9개국 대상 2024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비자 면제 정책 시행, 이로써 비자 면제 국가는 총 38개로 확대
- * 한국 : 2024년 11월 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비자 면제
- 한편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 체류 기한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함. 2024년 11월 30일부터 38개 비자 면제 국가의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교류 방문’ 및 ‘경유’ 목적 입국자는 무비자로 최장 30일간 중국 체류 가능

자료원 : 인민일보 해외판, CCTV

http://paper.people.com.cn/rmrbhwb/pc/content/202411/23/content_30031114.html

<https://baijiahao.baidu.com/s?id=1814525919172424834&wfr=spider&for=pc>

2 中, 1~3분기 가전 수출 13.5% 성장한 969억 달러

- 중국기전제품수출입상회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중국의 가전제품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3.5% 성장한 969억 달러로 안정적인 성장세. 냉장고, 세탁기 등의 수출량 증가율은 10% 이상, 에어컨 수출량은 6,870만 대로 전년 수출량을 추월
- 품목별로는 △(주방·욕실용 가전) 레인지후드, 인덕션, 전기온수기, 식기세척기 등의 수출량 증가율은 20%를 상회, △(생활용 가전) 진공청소기, 전기다리미, 세탁건조기 등의 수출량은 각각 28.7%, 25.7%, 225.1% 대폭 증가, △(개인용 가전) 이발기기, 헤어드라이어, 면도기 수출 증가율은 20%에 달함
- 백색가전 수출의 경우 對아시아, EU, 북미 수출이 각각 354억 달러, 258억 달러, 194억 달러, 이 중 對일본, 한국 수출은 각각 57억 달러, 31억 달러, 對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수출은 각각

35억 달러, 23억 달러, 22억 달러, 對미국 수출은 178억 달러. 수출 증가율이 대폭 상승한 국가는 브라질(51.9% 증가한 26억 달러), 멕시코(36.2% 증가한 30억 달러) 등으로 나타남

* 백색가전(생활가전) : 가전제품 중 냉장고와 세탁기, 청소기, 에어컨 등 기본적인 주거 생활 및 가사에 요긴하게 사용되는 중·대형 전자제품

자료원 : 중국경제망

http://www.ce.cn/cysc/zgjd/kx/202411/19/t20241119_39207381.shtml

3 中, '5G+산업인터넷' 융합 응용 시범도시 10개 발표

■ 11월 19일,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2024년 중국 5G+산업인터넷 포럼' 개최, 동 포럼에서 공업정보화부는 '5G+산업인터넷' 융합 응용 시범도시와 '2024년 5G 공장 명단'을 발표

-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5G+산업인터넷'의 규모화 응용 가속화를 위해 시범도시 건설사업을 전개, 도시별 인프라 건설, 업계 응용, 산업 생태, 공공서비스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 후 난징, 우한, 칭다오, 선전, 쑤저우, 상하이, 닝보, 광저우, 선양, 청두 등 10개 도시를 시범도시로 선정
- '2024년 5G 공장 명단'에는 석탄 채굴, 자동차 제조, 계측기 제조, 식품 제조, 의약품 제조, 방직,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등 39개 업종의 400개 5G 공장이 포함, 향후 220억 위안 규모의 투자를 견인할 전망

자료원 : 상하이증권보

<https://www.cnstock.com/commonDetail/318199>

4 中, 1~10월 온라인 화장품 거래액 13.7% 증가

■ 중국향수화장품협회(中国香妆协会) 발표에 따르면 2024년 1~10월 화장품(미용·스킨케어, 색조화장품, 향수, 구강용품, 샴푸용품)의 온라인 거래액은 13.7% 증가한 4,589억 위안

* 온라인 플랫폼 : 타오바오, 티몰, 더우인, 콰이서우, 징둥, 핀뉘뉘 등 포함

- 주요 플랫폼의 온라인 시장점유율은 '티몰(天貓)+타오바오(淘宝)' 41.6%, '더우인(抖音)' 39.2%, 징둥(京东) 8.7%, 핀뉘뉘(拼多多) 6.1%, 콰이서우(快手) 4.4%로 집계
- 온라인 거래액 기준 10대 브랜드는 로레알(111억 위안), 프로야(94억 위안), 칸스(75억 위안), 랑콤(71억 위안), 에스티로더(66억 위안), 후(54억 위안), 라메르(46억 위안), 올레이(45억 위안), SK-II(41억 위안), 헬레나(37억 위안)로 집계

자료원 : 36kr

<https://36kr.com/p/3046888023457539>

5 中, 숏폼 드라마 인기로 이용자 5.8억 명 달해

■ 중국온라인시청프로그램서비스협회가 발표한 ‘중국 숏폼 드라마 보고서(2024)’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의 숏폼 드라마 시장규모는 504억 위안으로 추산, 영화 흥행수입은 470억 위안을 추월할 전망

* **숏폼 드라마(微短剧, short play)** : 회당 수십 초부터 15분이 넘지 않는 드라마로 재생시간이 짧고 전개 속도가 빠름

- 현재 숏폼 드라마 이용자 수는 5억 7,600만 명으로 음식배달 서비스, 인터넷 도서, 콜택시, 인터넷 동영상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수를 상회
-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 중 70%는 숏폼 드라마를 시청하는 습관이 형성, 이 중 36.2%는 매일 시청, 38.2%는 매주 수차례 시청. 숏폼 드라마 앱인 ‘홍귀(红果)’의 일간 이용자 수는 5,000만 명을 돌파하여 텐센트 동영상(腾讯视频), 아이치이(爱奇艺)의 뒤를 이었고, 유쿠(优酷), 망고TV(芒果TV) 등을 추월, 올해 연말 이용자 수 1억 명 달성을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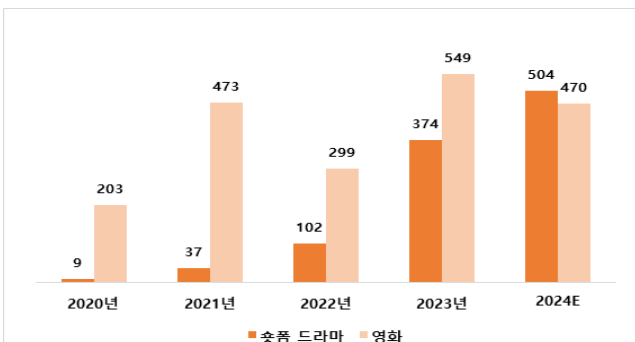
〈중국 숏폼 드라마 포스터·촬영단지·앱〉



- 올해 3월 기준, ‘홍귀’ 앱 사용자의 1인당 평균 이용시간은 1시간 38분으로 모든 롱클립(长视频) 플랫폼을 추월. 한편 중국의 숏폼 드라마는 해외에서도 큰 인기로 향후 시장규모는 360억 달러에 달할 전망
- 중국 내 숏폼 드라마 관련 기업은 8.3만 개사에 달하며, 항저우시 린핑구(临平区)는 중국 최초 숏폼 드라마 촬영단지인 린잉창(临影厂)을 건설. 지난해 11월 운영개시 후 360여 개 제작팀이 입주하여 매일 최소 1편의 숏폼 드라마를 제작

〈2020~2024년 숏폼 드라마 및 영화 시장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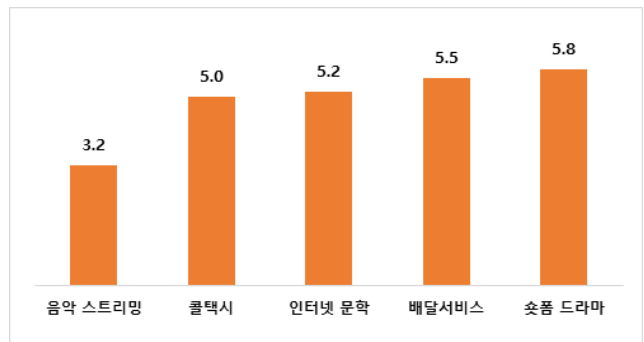
(단위 : 억 위안)



*출처 : 아이메리서치(艾媒咨询), 톱데이터(拓普数据)

〈2024년 상반기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 수〉

(단위 : 억 명)



*출처 : 중국인터넷정보센터(CNNIC)

자료원 : 홍싱뉴스(红星新闻)

<https://baijiahao.baidu.com/s?id=1816314486678589672&wfr=spider&for=pc>

<https://baijiahao.baidu.com/s?id=1814943736338350872&wfr=spider&for=pc>

6 中, 생성형 AI 시장 폭발적 성장

올해 1~10월 생성형 AI의 신규 이용자 수는 중국이 2억 4,500만 명, 전 세계적으로는 18.4억 명에 달함. 글로벌 시장에서 바이트댄스(ByteDance)의 도우바오(豆包)는 신규 이용자 수 1억 800만 명으로 ChatGPT에 이어 2위를 차지

- * **생성형 AI** : 주어진 데이터를 학습해 새로운 콘텐츠(텍스트, 이미지 등)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
- * **바이트댄스(ByteDance)** : 중국 IT 기업, 더우인(抖音)의 모회사

- AI 통계사이트 Alcpb닷컴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도우바오(豆包, 채팅봇, 문서 작성, 외국어 학습 등 기능)가 5,100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생성형 AI로 부상. 바이두(百度)의 원샤오옌(文小言, 문서 작성, 번역·요약 등 텍스트 처리 기능)과 문샷(月之暗面)의 키미 스마트비서(Kimi智能助手, 논문 해석, 기획안·코드 작성 기능)는 각각 2위, 3위를 차지
- 글로벌 시장에서는 10월 기준 중국 바이트댄스의 도우바오와 미니맥스(MiniMax)의 토키 AI(Talkie AI)가 각각 2위, 10위를 차지
- 바이두 리엔홍(李彦宏) CEO는 최근 개최한 ‘바이두 월드 컨퍼런스’에서 “지난 2년간 AI의 답변 정확도가 크게 향상되었으며,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고 강조함

〈2024년 10월 글로벌 생성형 AI 순위〉

순위	AI 명칭	로고	개발사	10월 이용자수 (백만 명)
1	챗 지피티 (ChatGPT)		오픈 AI	258
2	도우바오 (豆包)		바이트댄스 (ByteDance)	51
3	노바 (Nova)		노바 랩스	47
4	리미니 (Remini)		밴딩 스폰즈	29
5	에스크 AI (Ask AI)		코드웨이 디지털	28
6	챗 온 (Chat On)		AI BY	27
7	페이스앱 (FaceApp)		페이스앱	26
8	캐릭터 AI (Character AI)		캐릭터 테크놀로지	25
9	챗봇 AI (Chatbot AI)		스마트 AI 테크놀로지	22
10	토키 AI (Talkie AI)		미니맥스 (MiniMax)	20

〈2024년 10월 중국 생성형 AI 순위〉

순위	AI 명칭	로고	개발사	10월 이용자수 (백만 명)
1	도우바오 (豆包)		바이트댄스 (ByteDance)	51.3
2	원샤오옌 (文小言)		바이두 (百度)	12.6
3	키미 스마트비서 (Kimi 智能助手)		문샷 (月之暗面)	10.0
4	스파크 (讯飞星火)		커다센페이 (科大讯飞)	5.7
5	텐궁AI (天工AI)		쿤룬완웨이 (昆仑万维)	5.6
6	즈푸칭옌 (智谱清言)		즈푸 (智谱)	5.2
7	싱예 (星野)		미니맥스 (MiniMax)	5.1
8	통이 (通义)		아리윈 (阿里云)	3.8
9	마오상 (猫箱)		바이트댄스 (ByteDance)	3.7
10	광속작문 (光速写作)		쭈어예방 (作业帮)	3.7

*출처 : Alcpb닷컴

자료원 : 중국매일경제망, 시나과학기술

<https://www.nbd.com.cn/articles/2024-11-14/3645317.html>

<https://finance.sina.cn/tech/2024-11-04/detail-incuximx1942023.d.html>